

올 아파트 6984가구 ... 작년의 절반

올해 지역 주택건설사들의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대규모 입주를 앞둔다.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서 건설사들이 물량 줄이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들은 외지 중심으로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소재 주택건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주택공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 업체가 총 6984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2개(광주 25, 전남 17) 업체가 1만3903가구(광주 6354, 전남 7549)를 공급한 것과 비교해 업체수는 4분의 1, 공급량은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주요 공급 업체는 라인 1700가구(광주 동구 계림동), 중흥건설 1600가구(영암 대불산단), 골드클래스 1409가구(광주 동구 지원동·북구 각화동), 한국종합건설 669가구(광주 서구 화정동·북구 용봉동), 이지건설 350가구(빛가람 혁신도시), 해광건설 300가구(광주 서구 화정동) 등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2년여간 광주지역에 몰려들던 분양시장이 점차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전남지역 주

광주·전남 10개 업체 분양 택지난 건설사 물량줄이기 분양시장 열기 여전할 듯

택시장은 2008년 말 몰려들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신규 공급물량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다 2010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택시장이 수완자구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이어 2011년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개발로 중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는 급등세를 나타냈으며 분양 단지마다 청약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분양 열기를 고조했으나 2012년말부터 부동산 호황세가 꺾이면서 민간건설사들이 10년 가까이 공급하지 않았던 임대아파트 분양에 적극 나선 바 있다. 2013년에도 이런 현상은 이어졌고, 2014년에는 장기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정부의 청약규제 완화, 단독주택 가격 상승 등의 호재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당초 계획 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는 등 청약 광풍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택지수급난과 신규 공

급량이 크게 줄어 2016년 및 2017년부터는 또다시 주택 수급 불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입주 대기물량이 많고 재건축, 개개발, 공공 부문을 포함한 공급량을 합치더라도 1만 가구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급량은 감소 추세지만 업체 간 경쟁과 분양시장 열기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금호, 포스코, 한양, 두산, GS 등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시공 사업을 찾고 있고, 라인과 골드클래스, 영무건설 등 지역 중견건설사들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사업장을 확보해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과 거리를 뒀던 광주·전남 도급순위 1위 호반건설이 전남부서를 꾸리고 인력 충원과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타지역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사업의 원자재인 택지 매입이 전사적으로 뛰어난 것이 주요한 이유다. 호반과, 중흥, 골드클래스 등 10여 개 업체는 올해도 세종시를 비롯, 인천 청라, 광고 신도시, 청주 방석, 전주 만성지구 등에 3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27일 광주지역 백화점 식품관에 진열된 설 선물세트를 고객이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지역 백화점 매출부진 타개 안간힘

설 선물세트 일찍 예약 판매 ... 세일 이어 특집전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심리 위축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매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정기세일을 마무리한 데 이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겨울 상품을 60~80% 할인 판매하는 ‘클리어런스 특집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설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협력회사의 재고 소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유성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남 연륙·연도교 조기 완공 힘쓰겠다”

해상교량안전과 지역 도움 건설 현장 재해예방에 온힘 청렴·신뢰 갖춘 조직 우뚝

“익산국토청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49)은 2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의 행복을 모든 업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익산국토청은 호남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올해 가장 큰 현안인 연륙·연도교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해상교량안전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부서는 호남지역 해상교량 건설은 물론 운영중인 교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되며 기술 축적은 물론 발전시키는 임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유 청장은 “먼저 현재 진행중인 전남 지역 해상교량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계획중인 연륙·연도교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



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교량안전과가 신설된 것은 연륙·연도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전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해상교량을 통해 희망찬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지역의 교통사고 줄이기와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유 청장은 지난해 호남 건설 현장 재해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호남지역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년에 비해 28%나 줄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유 청장은 “교통사고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운전자와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 앞으로 더 줄어 나갈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재해도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근본지가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SOC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청렴과 신뢰도 제고 등 역할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유 청장은 “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과 국가하천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와함께 호남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무원들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하며 “익산국토청이 청렴과 신뢰를 갖춘 1등 조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공인중개사 10명중 4명 “기업형 임대사업 필요 못느껴”

부동산써브 설문 조사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4명은 아직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28명에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평가’를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38.9%(244명)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상조다’가 21.2%(133명)로 응답자의 약 60%(377명)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20.9%(131명), ‘중산층 주거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9.9%(62명), ‘일자리 창출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9.2%(58명) 순으로 집계됐다.

‘향후 수요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는 것을 골라달라는 질문에는 ‘장기간 안정적 주거 가능(최소 8년)’이 54.3%(34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상한(5% 이내)으로 주거비 추가 부담 감소’ 16.6%(104명), ‘보증금 반환 리스크 최소화’ 12.6%(79명) 등이었다. /임동룡기자exia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2.40 (+16.72)

▲ 금리 (국고채 3년) 2.03% (+0.01)

▼ 코스닥 587.84 (-2.50)

▼ 환율 (USD) 1079.80원 (-1.00)

1%대 주택담보대출 3월 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한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인 주택이어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은 중산층과 중대형 주택 수요로까지 확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얹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왕갈비(6,000원) 볼백 (6,000원)

625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일 맞출브랜드로 손님을 꼭 만족시킬 방안을 연구했습니다.